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농촌 인력난 해소 '청신호'

영암군, 공공형계절근로-농업근로자 기숙사 연계, 인력운영효율 극대화

영암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운영 기반이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영암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행정적 지원과 사업 기획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월출산농협과 금정농협이 운영 농협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금정농협은 영암군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기존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금정농협은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270농가에 총 1,045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높은 실효성을 입증했다. 영암군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인력 배치·행정 절차 전반에 걸쳐 지원을 강화해 2026년에도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새롭게 선정된 월출산농협 역시 영암군의 적극적인 공모 대응과 지역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특히 영암군이 건립한 농업근로자 기숙사에 월출산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영암군은 두 농협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 전반에 총괄 지원하고, 인력 수급 조정, 근로환경 개선, 농가 만족도 제고 등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지역 농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준두 농업정책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상시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고령 농가에 꼭 필요한 제도로, 영암군과 두 농협이 사업 기획부터 공모 대응, 운영 기



반 마련까지 협업하여 추진해 온 결과 이번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연속 선정된 금정농협과 신규 선정된 월출산농협, 그리고 농업근로자 기숙사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농가의 신청에 따라 일일 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제도로, 인건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열선루에서 이순신 장군의 결의, 빛이 되어 나리다
이순신 역사문화공원에서 2026년 2월 18일까지 빛 점등

보성군은 12월 19일부터 2026년 2월 18일까지 보성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운영해, 이순신 장군의 충의와 결의를 빛으로 형상화한 특별한 겨울 야경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경관조명은 2025년 보성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 준공을 기념하고, 겨울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원 전반에 조성된 조명 연출은 역사적 공간의 상징성을 살리면서도, 겨울밤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빛의 향연으로 방문객에게 색다른 야간 관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12월 19일 오후 5시 30분, 보성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에서는 '보성 열선루 이순신의 결의, 빛이 되어 나리다'를 주제로 빛 점등식이 개최된다.

점등식은 열선루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보성의 겨울밤을 즐길 수 있는 상징적 행사를 진행된다.

아울러, 경관 조명 운영 기간 동안 공원 내 야간 관광안내소도 함께 운영



된다. 안내소에서는 ▲보성의 문화유산 및 역사 해설, ▲관광 동선 및 주변 관광 정보 제공, ▲현장 안전 관리 지원 등 종합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방문객의 편의성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성열선루'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던 역사적 성소로, 충성과 책임의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다. 군은 이번 야간 경관조명을 통해 열선루의 역사적 가치와 서사를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해, 보성을 대표하는 명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산타와 함께하는 달콤한 하루, '순천만잡월드 크리스마스 파티시어' 개최

컵케이크 만들기부터 산타 깜짝 방문까지, 크리스마스 체험 한가득!

순천시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순천만잡월드에서 「잡월드 크리스마스 파티시어」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어린이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크리스마스 테마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 연말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벤트의 메인 프로그램인 '나만의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만들기'는 생크림과 잼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크리스마스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체험이다. 아이들이 파티시어라는 직업을 경험하며, 창의력과 성취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어린이체험관에서는 크리스마스 특별 테마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크리스마스 왕관 만들기, 산타 로봇 축구하기 등을 통해 아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직업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대형 산타 현수막과 크리스마스 트리 등으로 공간을 연출하고 산타의 깜짝 방문 이벤트를 진행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즐거움을 한층 더할 예정이다.

순천만잡월드 관계자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며 "올 한 해 순천만잡월드 어린이체험관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잡월드는 개관 이벤트를 시작으로 여름방학 오감 체험, 가을 클래식 공연, 추석 한가위 체험 등 특색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어오며, 단순한 직업 체험 공간을 넘어 가족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마스를 맞아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며 "올 한 해 순천만잡월드 어린이체험관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잡월드는 개관 이벤트를 시작으로 여름방학 오감 체험, 가을 클래식 공연, 추석 한가위 체험 등 특색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어오며, 단순한 직업 체험 공간을 넘어 가족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정성민 기자

강진군, 워크온 걷기 참여 확대 건강개선 효과 확인

설문조사로 걷기습관 개선 확인, 체성분측정서 체중·체지방 감소 효과

강진군은 민선 8기 군정의 핵심 과제인 군민 체감형 건강정책의 추진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강진군 공식 커뮤니티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와 체성분을 측정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 30일 기준 강진군 공식 커뮤니티 가입자 7,7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929명이 응답해 약 12%의 참여율을 보였다. 응답자는 여성 55%, 남성 45%였고, 연령대는 60대가 3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1%, 70대 1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강진읍 52%, 군동면 14%, 도암면 8% 순이었고, 건강상태는 질환이 없는 경우가 27%로 가장 많았으며 고혈압 24%, 고지혈증 20%가 뒤를 이었다.

워크온 참여 동기로는 건강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높았고, 가족·지인 권유 31%, 보건소 홍보를 통해 참여한 경우가 28%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 8기에서 지속 추진해 온 생활밀착형 건강정책과 홍보가 군민 참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 결과, 워크온 참여 전에는 주 5일 이상 걷는 비율이 43%였으나 참여 후에는 71%로 크게 증가해 걷기 실천이 군민 일상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번에 걷는 시간 역시 참여 전보다 늘어나 참여 후에는 1시간 이상 걷는 비율이 44%에 달했다. 걷기 시간대는 점심 또는 오후가 36%로 가장 많았고, 새벽 또는 아침 33%, 저녁 시간대 29% 순이었으며, 걷기 장소는 농로나 마을길 37%, 임도·공원 28%, 운동장 17% 등으로 생활권 중심 걷기 환경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손경설 기자

장성군이 군민과 공직자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올해 '성장장성 우수정책' 10건을 발표했다.

먼저 '어르신 택시 바우처 사업'이 눈길을 끈다.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14만 4000원의 택시 이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 읍내 등을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도 주목된다. 긴급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간당 1000원을 내고 월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장성 최초로 전남체전·전남장애인체전을 유치한 성과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양대 체전 합산 3만여 명이 장성을 방문했으며, 전남체전 종합 4위·성취상 1위, 장애인체전 종합 10위를 달성하는 등 대회 성

'군민이 변화 체감' 장성군, '성장장성 우수정책' 10건 선정

'어르신 택시 바우처 사업',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 등

적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와 함께 △장성군 캐릭터 '성장이와 장성이' 개발 △황동산립북문화센터 건립사업 선정 △건동광산 부지 내 데이터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함미랜드 테마공원 조성 △인공지능 기반 장성군 '에이아이(AI) 비서' 도입 △장성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로컬푸드 농가 레스토랑 '장성한상' 운영이 우수정책에 포함됐다.

한편, 올해 우수정책은 부서에서 추천한 36개 사업을 부서장 설문을 거쳐 15건으로 추린 뒤, 군민과 공직자 1800여 명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성/황해연 기자

무와 병행하며 자격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수질 안정성 확보, 시설관리 효율 향상, 사고 예방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례/한경호 기자

구례군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높여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여러 명의 직원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구례군 상수도 운영인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2급 1명, 3급 4명이 취득했으며, 상수도관 유지관리 분야에서

구례군, 상수도 운영인력 전문자격 취득으로 전문성 강화

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증을 3명이 취득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상수도 시설의 운영·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대응 능

력을 검증하는 국가자격으로, 이번 자격 취득을 통해 정수 생산부터 관로 관리에 이르기까지 상수도 운영 전 과정의 기술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현장 운영인력이 업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